

반월아트홀 개봉영화 2월부터 上映

영화시연회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 얻어



지난 2일 포천반월아트홀 영화시연회에서 상영된 <데더>의 한 장면.

포천시에서 영화가 상영됨에 따라 공연이나 전시회 관람과 함께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관계자, 시민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사회 형식의 영화시연회가 열렸다. 영화 상영에 앞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도시 포천은 이제 전국 어느 도시 못지 않은 문화기반 조성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포천시 승격과 함께 개관된 이래,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온 포천 반월아트홀은 영화상영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상영된 <데더>는 3월 1일 국내 개봉예정인 <데더>는 소 방대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액션, 휴먼 드라마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 후 흥운기 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장은 "오는 2월 중순부터는 매주 월,화요일 2회에 걸쳐 영화상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을 위한 영화상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좋은 작품을 계속 상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소중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화상영은 오는 19일 '폴리믹스 프레스'를 시작으로 매주 월,화요일 상영예정이며, 관람료는 전석 3,000원이다.

영화관람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월아트홀(전화 031-530-8938)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www.bwart.net)를 참고하면 된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포천반월아트홀 지역예술인들의 전시·공연 우선 기획해야

포천시 문화행정 실질적인 지원행정 절실

과거 전통문화의 깊은 뿌리가 있는 포천지역에 현대예술의 창구역할을 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천시지부를 창립하는데 중차대한 역할과 초대 회장으로서 국악,문인,미술,연극 등 4개 협회가 원활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김진동 회장(68.사진)을 만났다.



김진동 포천예총 회장

김 회장은 안동출생으로 안동사범대학을 졸업하고 80년대 초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정계저수지 맑은 물가에 터를 잡았다. 89년 문화원 설립까지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포천예술인동우회를 통해 포천 예술을 키워 위해 노력해온 김진동 회장은 "포천예총이 설립되기는 했지만 개집휴업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포천시 지원행정에 대해 "명목은 지원단체로 되어 있으나 운영하는데 한마디로 아무런 후원 내지는 자금조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예총의 큰 힘을 보여주고 싶지만 지원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립예술단체에 대해 김 회장은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기획이 필요하며 포천예술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천반월아트홀의 기획 전시·공연을 위한 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 김 회장은 "보통 지역현실을 전혀 모르는 학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역출신 전문가들을 30~40%는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 반월아트홀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 문화예술인들이 크게 환영을 했으나 지역예술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배제되고 소외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태도는 결국 각종 전시나 공연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화적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김 회장은 지역예술가들의 기획전시나 기획공연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된 시민대중 건립에 대해 김 회장은 "건립에 찬성하고 풍수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위치선정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 지역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김 회장은 지난 98년 포천예총 창립이후 현재까지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15일 제18회 한국예

총 예술문화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예총 예술문화상은 한국예총 본부에서 매년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예술인들 가운데 예총산하 10개 협회 및 시도지회의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예술인에게 있어 최고의 상으로 알려져 있다.

시예가인 김진동 회장은 이번에 미술부문에서 예총 경기도지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포천지역 인사가 예술문화상 대상을 받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포천예총이 2005년 새해 추진할 각종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 >제2회 마흔물대학 운영 >2005 포천현대미술제 개최 >제15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제4회 포천사랑 백일장대회 >제2회 산자수명 포천미술실기대회 >제12회 극단 한나 정기공연 >포천문화 제7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제12회 포천어린이 연극경연대회 >제8회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 >제4회 국악한마당 공연 >제4회 시민과함께 하는 무용공연 >제7회 포천연극제 >제7회 포천청소년연극제 >포천 예술誌 제6호 발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노인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

노인인구는 2000년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화 사회 진입했으며 2020년 전체 인구의 21.3%로 노년인구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노인분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특히 운전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고 법규,교통환경, 차량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게다가 우리의 교통환경은 고령화 사회에 부적합한 환경이다. 또한 운전자들의 난폭운전과 안전보다는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노인분들의 운전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김순희 주부명예기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60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매일 평균(2003년) 5.9명 연간 2천1백68명이 사망하고 평균 80명, 연간 2만9천268명이 부상당한다.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 중 사고사망률이 63.3%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2002년, 경찰청)

고령자의 교통행동의 특성은 신호나 규칙을 무시하고 뒤에서 오는 차의 접근에도 주의를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보지 않고 즉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횡단하기도 하는데 자동차가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안하고 걷는 경우가 많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멈춰 서서 휴식하기도 한다.

위험을 지각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민속예술 진수 올 가을 포천에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오는 10월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전국 16개 시도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같은 사실은 포천시가 지난 3일, 문화관광부, 경기도 관계자와 가진 축제개최에 따른 관계자회의에서 밝혀졌다.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0월중 16개 시도대표팀과 이북5도 성인대표팀 등 17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경연내용은 민속놀이와 민요, 농악, 무용 등이며 문화관광부와 KBS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주관하며 한국민속예술진흥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여 마련한다.

시상은 최우수상에 대통령상, 최우수상 1천만원, 우수상은 국무총리상으로 상금 700만원,금상은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상금 5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연종목은 전라남도 갈골들소리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팀이며 포천메나리도 개최지 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시연할 계획이다.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광역시도 16개팀이 참가하여 청소년들의 전통민속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연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상계획은 대상에 국무총리상으로 상금 700만원, 금상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상금 5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천시는 이번 전국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색깔 있는 도서관 만들기

의정부정보도서관 문화·영상·어학강좌

의정부정보도서관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문화교실, 영상 및 어학강좌의 수강생을 석차순 모집한다.

지난해 많은 호응속에 진행된 강좌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에도 다양한 색깔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통화구연, 자녀독서지도 등 8개 문화교실강좌와 독서치료, 어린이 조형미술 등의 신선편지 등 총 10개의 강좌를 개설한다. 영상강좌는 디지털비디오 카메라 배우기, 영상편집,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회화, 어학강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주부 및 직장인들도 수강 할수 있으며, 영상 및 어학강좌의 경우 영상미디어센터(edu.uilb.net)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시민을 위한 무료강좌로 문화교실은 다음달 8일부터 6월부터 4개월간 주2회, 영상강좌는 26일까지 1개월에 주2회, 어학강좌는 5월말까지 3개월간 주2회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uilb.net)를 참조하면 된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우리전통문화 함께 배워요

제3기 전통예술교육강좌 수강생 모집



경기도국악당에서 실시한 '제3기 전통예술교육강좌'의 초등학교 단소교실.

오는 14일부터 경기도국악당에서는 '제3기 전통예술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경기도국악당 전통예술교육강좌는 경기도립국악단원 등 전문국악인들로부터 우리 악기와 소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 제3기 과정은 3월 2일부터 강좌별로 해당 요일에 첫 수업을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어린이 강좌는 지난 1기 모집시 3개 반 추가 개설 사례까지 낳았던 인기 강좌인 '유아 사물교실'의 중

이제 포천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다

반월아트홀 영화 폴리믹스프레스 상영

포천시는 오는 19일과 20일 오후 3시와 7시30분, 21일과 22일 오후 7시30분에 반월아트홀대극장에서 폴리믹스프레스를 상영한다. 이번에 개봉되는 폴리믹스프레스는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온 크리스 반 엘스버그의 동화책을 영화화한 폴라 익스프레스로 꿈과 용기를 전해주는 어드벤처 영화다.

이 영화의 내용은 한 외의 많은 소년이 북극권 열차를 타고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행은 소년에게 이 세상의 경이로운 것들 중에서 굳게 믿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해준다.

5번이나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시각 효과 슈퍼바이저 켄 웰스톤과 2000년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션된 제롬 쉐이 이끄는 소니 픽처스 이미지 워크가 차세대 모션 캡처 기법으로 손꼽는 CG 애니메이션을 투입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동작 캡처(performance capture)'라 불리는 혁신적인 기법을 통해 이 영화는 배우들의 감정부터 움직임까지 세세하게 디지털 캐릭터에 담았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22)

「새해」초 선비 풍속

농본 국가였던 한반도는 가을 추수가 끝이 나고 가을 감사의 달. 시제의 달도 끝나면 겨울나기 준비를 한다.

풍요와 감사의 절이 지나면 「희망의 새해」가 온다. 미주나 유럽은 크리스마스에서 절정이던 열정적이고도 축제분위기의 연말은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면 그만이라고 한다. 필자가 본 바로는 새해를 맞는 요란함에 비하여 새해 첫날은 너무 쓸쓸하였다. 그러나 아침의 나라 한반도는 새해맞이가 매우 요란하다

그만큼 잠을 자면 눈썹이 희게 새고 신발을 구신이 감춰 간다고 뜬눈으로 밤새우고 틀라거리며 놀고 새벽 달 담고 뜨는 해 담은

정화(精華)의 물로 세수도 하고 먹기도 하며 금자동(金子童)에게 먹이며 새해를 맞는다.

우리 민속 풍속의 반 이상이 살날→대보름 사이에서 행해진다. 세계에서 제일 살날을 잘 지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다시 말해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찬 민족이라는 의미로 철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럼날 밤에는 1년 동안 신세진 분들에게 「묵은 세배」를 드리고 세찬을 울리며 먼 곳은 종이나 이랫사람을 보내 1년 과세 인사를 드린다.

선비들의 빙화(氷畵)풍속이 있었다. 정월 인일(人日)에 세수대 아만한 나무 그릇에 물을 담고 그 북판에 질그릇 하나를 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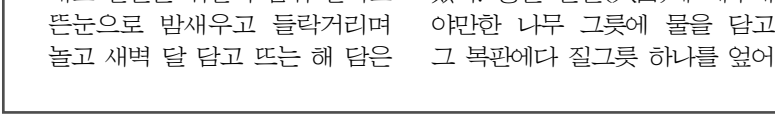
놓고 방문 밖에서 놓아두고 잠이 든다. 자고나면 그 나무 대야에는 다양한 얼음꽃이 핀다. 「수목(水木)·화초(花草)」·「짐승」·「집모양」·「짐차모양」·「차마(車馬)」·「갈기도 한이」·「얼음꽃(氷畵)」을 들고 사람방에다 놓고 마를 선비들의 품격(品格)을 겨룬다. 「십장생(十長生)」이거나 「사군자(四君子)」가 높은 품격을 받는다. 「빙화 내기」(氷畵)를 맺고 선비들이 모여 풍류를 즐겼다 한다.

또, 이 빙화로 1년 신수를 점치기도 하고 찬란한 모양의 빙화를 즐겼다는 기록을 옛 선비들이 남기고 있다. 또, 선비들 풍속으로 새해 첫 닭날(酉)에는 학을

이 영화는 「포레스 트 검 프」와 「캐스트 어웨이」의 톰 랭크스와 로버트 제메 키스 제작한 영화다.

한편 이 영화는 전체관람가로 전석 3천원의 관람료를 지불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수필가 김창종